

제59호
과천^동보기 사용설명서

과천경제 한 페이지



1 과천시 일자리 변화

- 2024년 사업체수는 7,522개(10년전대비 +105%, 전년대비 +12%)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, 증가율은 2위
- 2024년 종사자수는 73,309명(10년전대비 +122%, 전년대비 +50.6%)으로 규모는 27위, 증가율은 1위

과천시 사업체수는 2015년 3,662개에서 2019년 3,697개까지 5년간 3,600~3,700개대에 머물다, 2020년 6,068개로 한 해 사이 64%가량 뛰었다. 그러나 이는 조사방식 변경*에 따른 결과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. 이후 사업체수는 2021~2023년 6,039~6,714개 수준에서 완만히 늘다가 2024년 7,522개로 다시 한 번 크게 증가했다. 그럼에도 2024년 사업체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로 절대 규모는 가장 작은 축에 속하지만, 전년 대비 증가율은 경기도 내 2위를 기록해 규모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.

과천시 종사자수는 2015년 32,956명에서 2019년 34,834명까지 완만히 늘다가, 2023년 48,660명에서 2024년 73,309명으로 1년 사이 24,649명(+50.6%)이 폭증했다. 2024년 종사자수는 27위로 사업체수(31위)보다는 다소 높지만, 전년대비 증가율은 1위다. 사업체수 증가율(+12%)보다 종사자수 증가율(+50.6%)이 훨씬 가파르다는 점은 신규 창업보다 기존 사업체의 '대형화' 또는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들의 고용 규모 자체가 컸다는 점이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.

* 2020년 기준은 전국사업체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경제총조사를 시행한 해로, 모집단이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변경됨. 이에 따라, 가장 큰 차이점은 1인 유튜버,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들이 새로 조사대상 사업체 모집단에 포함되면서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



2 일자리 세부 분석

- 정보통신업 종사자수 +193.9%, 사업시설관리업 +353.1%로 지식산업 계열이 폭발적으로 성장
- 2024년 사업체수 최다 업종은 도소매업(2,243개), 종사자수 최다 업종은 전문·과학및기술서비스업(14,725명)

2023년 대비 2024년 산업별 변화를 보면 정보통신업이 사업체수 300개→405개(+35.0%), 종사자수 3,925명→11,536명(+193.9%)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.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은 사업체수가 125개→127개로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종사자수는 2,516명→11,399명으로 353.1% 폭증해, 일부 대형 사업체가 고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. 또한, 전문·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 사업체수 +23.0%, 종사자수 +35.2%로 고르게 성장했다. 세 업종 모두 지식정보타운의 핵심 입주 업종과 맞닿아 있어, 앞서 확인한 종사자수 폭증(+50.6%)의 상당 부분을 이 세 업종이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.

2024년 기준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(2,243개)이며, 숙박음식점업(775개)·운수창고업(709개)·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(528개)·교육서비스업(527개)이 뒤를 이었다. 상위 5개 업종의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각각 +24.6%, +15.3%, +14.2%, +7.2%, +8.2% 증가해 생활서비스업 전반의 고용도 완만히 늘었다.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문·과학및기술서비스업(14,725명)·정보통신업(11,536명)·사업시설관리업(11,399명) 등 3개 업종이 도소매업(7,265명)·공공행정(6,088명)을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했다. 사업체수 상위권(생활서비스업)과 종사자수 상위권(지식산업)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은, 과천시 고용시장이 '다수의 소규모 생활서비스업'과 '소수의 대형 지식산업 사업체'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.

- 회사법인 종사자수가 23,716명→47,022명으로 1년 새 거의 두 배(+98.3%) 증가
- 행정동별로는 갈현동 사업체수 +78.4%·종사자수 +306.7%로 압도적 1위

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의 종사자수가 2023년 23,716명에서 2024년 47,022명으로 98.3% 증가해 약 두 배로 성장했다. 같은 기간 회사법인 사업체수는 1,201개→1,493개(+24.3%) 느는 데 그쳐, 사업체수 증가보다 법인당 평균 고용 규모 확대가 종사자수 급증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. 행정동별 사업체수는 갈현동이 1,363개로 전년대비 78.4% 증가해 7개 행정동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, 종사자수 증가율도 +306.7%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. 갈현동의 폭발적 수치 증가는 갈현동의 인구 급증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,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갈현동을 중심으로 주거와 산업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.



3 일자리에 대한 시민 생각

- 일자리가 '충분하지 않다'는 응답이 2021년 50.9%에서 2025년 45.0%로 다소 완화
- 평소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비중은 68~72%대로 안정적 유지

지역 내 일자리 충분도 조사에서 '그렇지 않은 편이다+전혀 그렇지 않다'(불충분) 비율은 2021년 50.9%에서 2023년 46.0%, 2025년 45.0%로 완만히 낮아지는 추세다. 일자리 창출 우선 분야로는 '일자리 발굴사업'이 2021~2025년 내내 1위(33~37%대)를 지켰고, '취업알선'이 2021년 16.1%에서 2025년 20.3%로 꾸준히 비중을 늘려 2위 자리를 굳혔다. 경력단절여성의 희망 근로형태는 변동성이 컸다. 2021년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(48.8%)가 가장 높았으나 2023년에는 시간제 선호가 51.2%까지 급등해 역전되었고, 2025년에는 다시 전일제(42.6%)가 시간제(44.7%)에 근접하며 균형을 되찾았다. 반면에, 평소 경제활동(종사상 지위)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2021~2025년 내내 68~72%대를 유지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 역시 소폭(+2.8%) 늘었다.



4 과천시 물가 현황

- 쌀 가격 누적증감률 15.6% 및 화장지 가격 38.5%로 생필품 물가 오름세 뚜렷
- 삼겹살 가격이 2024년부터 치킨을 추월해 역전됐고, 양복세탁료도 2021년 대비 48.9% 상승

2021년 1월 대비 2026년 1월 생필품 가격은 모두 상승했으며 이중 화장지가 38.5%(18,700→25,900원)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. 쌀값은 2024년 7만 6천 원대에서 2025년 6만 9천 원대까지 내렸다가 2026년 8만 6천 원대로 반등하는 등 등락이 컸던 반면, 소주·라면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. 외식 요금에서는 2024년의 삼겹살과 치킨의 역전 현상이 눈에 띈다. 2021~2023년에는 치킨(16,143→15,583원)이 삼겹살(14,273→14,809원)보다 비쌌으나, 2024년을 기점으로 삼겹살이 16,238원으로 치킨(15,571원)을 앞지른다. 생활서비스 요금 중에서는 생활 서비스 요금에서는 양복세탁료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는데, 2021년 6,163원에서 2026년 9,180원으로 48.9% 상승했다. 미용컷트는 2021년 15,083원에서 2026년 18,000원으로 19.3% 상승한 반면, 수영장이용료는 4,250원에서 4,500원으로 비교적 소폭 상승했다.



5 지역화폐 '과천토리'

- 1회 평균결제금액이 2023년 21,623원에서 2024년 25,420원으로 전년대비 +17.6% 급등
- 2019년 4월부터 누적 가입자 107,371명, 2025년 연간 사용액 580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

과천토리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2021년 22,060원에서 2022~2023년 소폭 낮아졌다가 2024년 25,420원으로 전년대비 17.6% 뛰었다. 연령·성별 결제건수 상위 5위를 보면 2021~2023년 50대 여성이 2위였다가 2024년 40대 남성으로 교체되었다. 30대 여성도 2021년 4위에서 2023~2024년 3위로 순위가 올라,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른 30~40대 유입 효과가 지역화폐 이용 패턴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. 가입자 수는 202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정점(25,607명)을 찍고 2023년에 급감(8,576명)되었다가 다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. 연간 사용액 역시 2022년 48,798백만 원까지 늘었다가 2023~24년 37,636~40,745백만 원으로 주춤한 뒤, 2025년 58,050백만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. 신규가입자와 사용액의 증감 흐름이 대체로 비슷한 시차를 두고 연동되는 양상이다.

과천돌보기 제59호는 [출처]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으며, 원 자료에서 제시된 구분 항목을 준용하였습니다.

[출처]

- KOSIS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총괄 · KOSIS 산업별, 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· 2025년 과천시 사회조사, 2024년 과천시 사회조사
- 과천시 통계 포털(개인서비스요금동향/생필품요금동향) · 경기데이터드림(지역화폐연령별성별이용현황/지역화폐발행및이용현황)